

Hugo W. Kim
인생의 회상과 노년의 향기
Reminiscences of My Life

제 2 장

육군사관학교 졸업과 군대생활 (1962-1979)

1.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시절 (1962-1966) 23
생도대 생활, 교수부 생활, 하계군사훈련과 전방실습
2. 육군 소위-중위 시절 (1966-1969) 30
초등군사반, 소대장, 대대참모, 태권도 교관
3. 육군 대위 시절 (1969-1974) 35
ROTC 교관, 중대장, 고군반, 사단 작전장교
4. 육군 소령 시절 (1974-1979) 37
연대작전주임, 훈육관, 육군대학 학생, 육본 참모장교
5. 육군 중령 시절 (1979-1987) 39
미국 유학, 육본 참모장교, 국방대학교 교수

나는 1962년 3월에 정식으로 육군사관생도가 되었다. 사관생도의 생활은 엄격한 규율 속에 생도대와 교수부에서 이루어졌고, 육사 22기는 250명이 입교하여 181명이 1966년 2월 육군소위로 영광스럽게 임관을 하게 되었다.

임관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육군보병학교에서 초등군사반의 교육을 마치고 전방사단의 보병연대에 배치되었다. 보병중대 소대장과 대대참모의 직책을 수행하고, 1967년 12월에 태권도 교관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군 전투요원에게 한국의 태권도를 교육하였다.

1969년 6월에 귀국하여 대위로 진급하고, 서울대학교 ROTC 교관으로 보직되어 18개월 동안 장교후보생들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바로 전방중대장에 보직되어 근 2년 동안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육군보병학교 고등군사반에 입교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후, 전방사단 작전처 작전장교에 보임되어 작전분야의 실무를 경험하였다.

소령으로 진급되어 1974년 7월 전방사단의 보병연대 작전주임에 보직되었고, 임기종료 후에 육군 3사관학교 훈육관으로 보직되어 심혈을 다하여 생도훈육에 임하였다. 1977년 육군대학에 입교하여 1년간 교육을 마치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관리장교로 보직을 받고 직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능력개발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나는 중령으로 진급하였고, 1979년 9월에 미국대학교에 유학하여 처음 3년간에 경영학 석사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다음 3년의 유학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논문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대령진급에서 누락되어 1987년 전역을 하게 되었다.

나는 군인이 되기를 원하여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고, 보병장교가 되어 충실히 경험과 경력을 쌓았다. 중령이 되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유학을 하였으나, 군인으로서 야전경력이 부족하여 경쟁에 뒤지게 되었고,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진하다 보니 점차 학문의 세계로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직업군인의 길을 이탈하게 되었다.

1.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시절 (1962-1966)



육군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 기관으로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로 시작하여 다음 해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경비사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태릉에 설치되었다. 군사교육은 초기에 일본식이 많이 혼재해 있었으나 점차 미군 군사고문단의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식으로 바뀌었다. 1948년 9월 학교 명칭이 육군사관학교로 바뀌었고, 1949년부터 육사 10기로 2년제 정규교육을 실시 하였으나, 6.25 전쟁터에서 많은 동기생을 잃은채 1950년 7월 대전에서 소위로 임관되었다. 1950년 6월 1일 정규 4년제 사관생도 333명이 처음 입교하였으나 입교 24일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투에 투입되어 많이 희생되었고, 사관학교가 일시 폐교되어 육군종합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단기 소위로 임관되었다. 그후 경남 진해에서 체제를 개편하여 1951년 정규 4년제 사관생도 200명을 입교시키고, 1954년 6월 학교를 태릉으로 재 이전하여, 1955년 10월에 156명이 학사학위를 받고 육사 11기로 졸업하여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사관학교는 학교장 중장 지휘아래에 생도대와 교수부로 나뉘어 각각 준장이 지휘하였다. 교수부는 대학교수의 자격을 갖춘 군인이나 민간인의 학자로 구성되었고, 생도가 졸업시 이학사의 실력을 갖추도록 미국 육사의 교과과정과 유사하게 과목을 편성하였다. 생도들은 매일 아침 생도대 광장에 정해진 대형으로 집결하여 당직사관 생도에게 학과출장 보고를 하고, 생도연대가 행렬 대형으로 중대별로 질서있게 행진하여 교수부로 향하였다. 도착 후 각 생도는 편성된 해당 학급에 들어가 수업을 받았다. 한편, 생도대는 생도들이 숙식을 하고 군대 규율을 익히면서 내무생활을 하는 곳이다. 당시 생도대는 2개 대대로 편성하여 각각 중령 대대장이 지휘하였고, 각 대대는 4개 중대로 대위 훈육관이 생도훈육을 담당하였다. 당시 생도 수는 각 학년이 200명으로 총 800명 정도였으며, 4개의 2층 건물에 수용되었다. 이들 생도 숙소는 생도대광장을 중앙에 두고 시계탑을 향하여 2 건물씩 마주 보고 좌측에 제 1 대대 우측에 제 2 대대가 들어가고, 각 건물은 “ㄷ”자 모양으로 2개 중대가 각각 한 날개에 수용되었으며, 각 중대는 100명으로 각 학년 25명이 혼합하여 구성되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기본적으로 군사학을 배워서 대대장으로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수준을 요구하였다. 일반학으로 당시는 이공학을 전공하여 이학사 학위를 받았다. 체육학에서는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다양한 무술을 연마하였다. 군사훈련은 가입교 기간에 화랑기초훈련으로 군인화 교육과 함께 병기본을 습득하며; 하기군사훈련은 각 학년 6주간으로 1~2학년은 병기본 훈련, 분대전술, 유격훈련을 받으며; 3~4학년은 공수훈련, 소대전술, 과학화 전투훈련을 받았다.

사관생도들은 의식주에 드는 비용과 학비는 전액 국비로 제공받으며, 급여와 품위 유지비를 매달 지급받고, 지금은 개인 노트북과 학업에 필요한 용품들을 지급받는다. 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지금 사관생도들은 학년별로 국토순례를 하며 1학년 때는 울릉도와 독도를, 2학년 때는 제주도와 마라도를, 3학년 때는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한다. 또한 육군 예산과 육사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외국의 전사적지를 탐방한다. 생도복장은 예복, 정복, 근무복, 전투복, 체육복 등 다양하며; 문화 체육활동에는 학술분야, 예능분야, 체육분야가 있다.

당시 나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군인과 민간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많이 실감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나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1962년 2월 육사에 입교하였다. 많은 동기생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우리 동기는 250명이 입교하여 1966년 3월에 육사 22기로 졸업하여, 181명이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입교자 중 69명은 대부분 적성이나 체력의 한계로 함께 임관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소개 영상: <https://youtu.be/2nfZ4D6S4XQ>

육군사관학교 생도대 생활

사관생도들은 각 중대의 대위 훈육관 지도하에, 장교로서 바른 군인정신을 가지고 장래에 군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육을 받았다. 중대 훈육관은 생도들이 생도규정에 명시된 대로 내무정돈이 잘 되어 있는가 수시로 점검하여 별점을 매겼다. 이를테면 침구는 잘 정돈되어 있는가, 군화는 잘 닦아서 빛이 나는가, 옷장의 복장은 규정대로 잘 정돈이 되어 있는가, 개인 병기는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무반 청소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등으로 점검할 것이 많았다. 매주 별점이 초과하면, 주말에 외출을 못하고 별점의

정도에 따라 화랑 연병장에서 우로어깨총으로 정해진 시간만큼 보행을 하였다. 훈육관은 수시로 훈시를 통하여 생도들에게 군인정신을 고양하고, 장교로서 품격과 지도력을 갖추도록 강조하였다. 개인의 인간적 성숙은 각자의 자각과 수양이 중요하겠지만, 항상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군인정신을 강조하는 훈육관의 훈시는 늘 마음에 와 닿았다.

(1) 생도대 자치근무제도: 생도대는 보병연대의 편제를 따라 연대장생도와 연대참모생도, 2개 대대의 대대장생도와 대대참모생도, 8개 중대의 중대장생도와 구대장생도 및 분대장생도로 자치근무제도가 편성되었다. 근무생도는 모두 4학년 생도로 임명하였고, 연간 4회를 교대하며, 이들 근무생도들은 생도대 훈육장교회의에서 선발하였으며, 각 중대 훈육관의 추천이 임명에 중요하였다. 생도대 자치근무 제도는 생도생활에서 군의 지휘 통제 체제를 생활화하여 그들의 지휘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나는 제 1차 근무 팀에서 제 2대대장 생도로 근무를 하면서, 각 중대가 생도규정을 지키도록 단속하였다.

(2) 사관생도 명예제도: 생도대 각 중대에서 4학년 생도 1명을 명예위원으로 선출하여 총 8명으로 생도대 명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허위, 절도, 컨닝”의 행위를 하는 것을 어느 생도가 인지하면, 바로 중대 명예위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보고된 사항이 유죄로 판명되면 명예위원장은 생도대 지휘계통에 즉시 보고하고,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위반한 생도의 퇴교를 결정하고, 행정명령을 집행하게 된다. 저자가 체험한 일화로, 생도 2학년 때 같은 중대의 한 생도와 함께 한국일보 퀴즈에 답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뽐히면 어느 영화 시사회에 초대장을 받게 되었다. 나는 1장을 그리고 그는 5장을 응답하여 몹시 궁금하였다. 그가 교수부 자습시간에 정위치를 떠나 신문을 보러 도서관에 가는 도중에 재수없이 어느 훈육관을 만나 어디가느냐고 묻자, 별점을 피하려고, 생도대에 계산책을 가지러 간다고 거짓으로 둘러댔다. 그는 교수부 자습실로 돌아와 이 사실을 동료 생도들에게 방담으로 말 했는데, 그와 경쟁관계에 있던 같은반 한 생도가 명예위원회에 “허위”로 고발을 하였다. 그는 매우 우수한 생도였는데, 곧바로 퇴교를 당하여 한동안 몹시 허전하였다.

(3) 지연과 학연이 용납되지 않는 생도대: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입시경쟁이 치열하여 일류 고등학교에서 다수 입교하였다. 서울에서는 경기-경북-서울-용산 등의 고등학교에서 각각 20명 전후하여 합격하였고, 지방에서는 광주제일고, 광주고, 부산고, 경북고 등에서 20명

정도, 여타 우수 고등학교에서는 5명 미만이 합격하였으며, 단 1명이 합격한 학교도 많이 있었다. 같은 출신고등학교 생도간에는 개인적 친분은 있었겠지만, 군인의 특성상 일체 지연이나 학연은 용납되지 않아 모두가 개의하지 않았다. 나는 교직생활을 체험하고 육사에 입교가 늦어, 고교 졸업후 바로 입교한 생도들 보다 3년이나 연상으로, 정신적 성숙도에서 많은 차이를 느꼈다. 신입 생도는 각 분대에 3명 정도로, 4학년 분대장 생도와 1학년생도 3명이 같은 내무반에 배치되었다. 서울고 출신 김형각 분대장생도는 자상하고 친절하였다. 내무반은 4개의 책상이 가운데 맞물려있고, 양측에 2층침대가 벽에 붙어 있었다. 분대장 생도 침대는 1층이고 나의 침대는 2층에 있어, 내가 올라갈 때면 매우 조심스러웠다.

(4) 상급생의 과도한 간섭: 생도대에서 상급생에 복종하는 것은 절대적이었다. 내무생활은 복장검사, 차례자세, 보행자세, 식당군기, 청소상태 등등에서 상급생이 간섭할 일이 많았다. 이로 인해 저녁 식사후 휴식시간은 상급생도들이 이유를 만들어 하급생들에게 벌을 주었다. 어느해 국군의날 행사를 위해 여의도에서 퍼레이드 연습을 하였다. 중대가 대형을 편성하여 연습을 하는데, 나와 같은 2 번째 오에 우로어깨총을 하고 걷는 한 2 학년 생도가 자주 실수하여 오를 맞추지 못해 종종 불합격을 맞아서, 그날은 작심하고 “X 생도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라고 크게 말하였다. 당시 생도대 정서상으로 1 학년 생도가 2 학년생도에게 감히 이렇게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연습을 마치고 생도대에 돌아오자, “김생도는 아령 2 개 넣고 완전군장으로 상층 샤워실에 대기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무거운 배낭을 메고 샤워실 벽 파이프에 두발을 걸치고 두주먹을 쥐고 바닥에 엎드려, 쓰러지면 몇번씩 다시 자세를 취하며 기합을 받았다. 이러한 가혹행위가 잔인하게 한달 정도 계속되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생활

육사 교수부는 사관생도가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군사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여,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정예 정규장교가 되도록 교육하는 곳이다. 사관생도들은 교수부로 학과출장을 하면, 각 학년은 A 반과 B 반으로 나누어, 각 반은 해당 과목의 성적순으로 1~5 반 학급을 편성하여 수업을 받았다. 수업마다 마지막 시간에 일일고사를 치루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다. 어느 과목이나 성적이 미달하면 학기말에 추가

고사를 치게하였고, 여기에 불합격하면 성적미달로 퇴교가 되었다. 공부를 안하거나 못하는 생도들에게는 학기말 성적미달이 자신의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큰 위협이었다.

육군사관학교 하계 군사훈련과 전방실습

(1)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생도 1 학년 하계군사훈련은 병기본을 완성하는 기초훈련으로 당시 사관학교 가까운 야산에서 훈련을 받았다. 어느 더운날 휴식시간에 푸르게 자란 풀밭 위에 자리를 잡아 철모를 벗고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반대쪽을 보니 풀이 무성하게 보여 바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잠시 후 그 곳에서 이전에 앉았던 곳을 보니 훨씬 더 푸르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피안의 세계는 아름답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고, 인생을 살면서 매사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2) 하계훈련 중에 받은 부친의 별세 전보: 3 학년 하계군사훈련 도중 공병학교에서 부친이 별세하셨다는 전보를 받고 긴급 휴가로 고향에 도착하였다. 나의 부친은 장손으로 해방 후 경찰에 복무하던 중, 여수-순천 사건으로 몇번이나 생명에 위협을 받아, 조부님이 경찰을 그만두라고 하셔서 권고를 받아들여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전에 동경에서 중국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셨고, 해방 후 경찰에서 외부활동만 하시던 분이 농사짓는다고 갑자기 좁은 동네에서만 지내다 보니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간에 문제가 생겨 병을 다스리지 못하고 타계하신 것이다. 나의 조부모님은 건강하게 자영농을 하셔서 자급자족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행이 모친께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잘 키우셨다. 당시 나는 군에 있으면서 늘 형제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3) 병참보급에서 생기는 부정: 생도 4 학년 전방실습에서 나는 모 사단에 배치되어 실습을 하였는데, 병참보급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사단의 병참차량이 부식을 배달하면서, 매 초소를 지날때마다 육고기나 생선 등 인기 품목을 조금씩 떼어주기 때문에, 대대 식당에 배달되는 정량이 많이 부족하였다. 또한 식당의 취사병들이 고기를 삶아 숨겨놓고 나중에 술판을 벌리는 경우도 흔하였다. 따라서 병사들에게 돌아오는 고기국은 “황우도강탕” 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2002 년 한국방문시 제자가 연대장으로 지휘하는 전방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급식상태가 매우 좋아 흐뭇하였다.

(4) 홍수-산사태에 대처하는장교들: 같은 전방실습 기간에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고 급작스런 산사태가 병사들의 내무반 건물을 밀어부치려는 위험한 순간이 도래하였다. 나는 새벽에 병사들과 함께 급히 삽으로 수로를 파서 물줄기를 돌리고, 휩쓸려 내려오는 토사가 막사를 덮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여 막았다. 아침이 되어 장교들이 부대의 피해를 우선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대의 일부 장교들은 자기 숙소가 염려되어 서둘러 자기집으로 달려갔다. 당시 생도의 군인정신으로 볼때, 너무 실망스러웠다.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시절의 여타 회상

(1) 1966년 1월 1일 토요일: 맑게 개임. 언제나 출발은 의욕적이며 의지적이다. 그러나 결실이 위대한가는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오늘의 시작하는 마음이 한 해를 다 보내도록 부동심 속에 간직되기를 바란다. 4년간의 육사 생활을 마침으로서 내 인생의 제 1 단계는 종료되었고, 올해부터 제 2 단계의 인생을 시작하는 셈이다. 내가 목적인 수준의 자기완성에 이르러 사회적인 전망이 확실하고 경제적 기반이 확립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손색이 없는 개인이 될 때 제 2 단계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정진을 계속하자. 나는 지금 육사에 입교할 때보다 더욱 부푼 가슴을 안고 이 해를 맞이한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나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장 현명한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인재의 빈곤을 느끼는 현실에서 혜성처럼 빛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2) 1966년 2월 28일 월요일: 흐린 날씨. 오늘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여사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였다. 초대된 사람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장 및 생도대장 내외, 그리고 육해공 사관학교의 졸업식 수상자 20 여명 이었다. 만찬 전에 칵테일 파티가 있었고, 식사는 소고기를 적당히 잘라 맛있게 구워서 나왔다. 생도들은 자유롭게 담소하며 고기를 많이 먹었다. 초대해 주신 대통령 각하 내외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부족한 내가 두분이 참석하는 졸업식에서 재구상 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내가 생도생활 4년간을 통하여 바른 정신으로 정규 장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보람이 결실을 맺은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3) 사상계(思想界) 탐독: 당시 육사는 모든 과목이 필수였으며, 나는 이공계과목에 흥미가 없어 낙제하지 않을 정도로 지냈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에는 관심이 많아 사상계를 열심히 탐독하였다. 생도 4 학년 때 주말에는 외출을 하지않고 생도대에 남아서 독서를 하는 것이 보람있게 생각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국이 당면한 현실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4) 육군사관학교 1966 졸업식 영상 (봉화는 불탄다): 이 영상은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생활과 졸업식 현장을 찍은 것으로서, 노년에 저자 자신의 싱싱한 얼굴이 찍힌 아래 영상을 보니, 젊었던 생도시절을 회상하게되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3XEfOULrDY>

2. 육군 소위-중위 시절 (1966-1969)

나는 1966 년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가 일가친척과 친구 지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으며, 2 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광주-송정리 간에 소재하는 육군 전투교육사령부 예하의 보병학교 초등군사반에 입교하였다. 당시 한국 육군은 미국 육군의 교육 훈련 제도를 모방하여 장교 보수교육으로, 임관 후 4 개월 정도 초등군사반 교육을 하였다. 대위 계급에서는 연대급 이하에서 필요한 장비운용, 전술, 참모업무, 리더쉽에 관하여 4 개월 정도의 고등군사반 교육을 하였다. 소령으로 진급하면, 육군대학에서 1 년간 군단급 이상 고급 사령부 지휘관 및 참모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교육하였다. 대령계급에서는 국가 차원의 국방정책과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위하여, 제한된 인원이 국방대학원에 입학하여 1 년간 교육을 받으며, 상당 수가 장군으로 진출하였다.

육군 보병학교 초등 군사반 (1966)

(1) 1966 년 4 월 16 일 토요일: 바람이 분다. 군인은 멋있는 직업이다. 인생에서 생과 사를 눈앞에 두고 가부승패(可否勝敗)를 결정하는 군인은 그 선이 굵고 힘차고 생동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미(美)의 요소는 아닐지라도 꾸김살 없고 떳떳하며 통쾌한 삶이다. 생명을 담보로하여 위대한 예술을 창조한다는 명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일은 개개인에게 달려있으며, 각자의 가치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군인을 멋있는 직업으로 생각한다. 힘든 고역이 나를 엄습하고 시련이 닥치면 닥칠수록, 군인에 대한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관은 더욱 굳어만 간다. 고난의 시험이 나를 휩싸고 돌수록, 나는 몸과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야 하겠다. (이하 생략)

(2) 1966년 5월 8일 일요일: 날씨는 맑았다. 사랑하는 동생 휘열이가 가평에 있는 1군단 운전 교육대에서 운전교육 중에 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유해를 홍제동 화장터로 신고 갔다. 인생의 허무함은 이를 두고 말함이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진통을 느끼며 슬퍼했지만, 동생이 용광로 속에서 불타고 있다는 물리적 현상 밖에는, 이미 정신계에서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긋지긋한 화장터에 있을 수가 없어 차를 몰고 밖으로 나왔다. (중략) 화장한 뼈가루를 깍에다 담고 포장하여 화장터를 빠져나와 퇴계원 영현안치소로 왔다. 한 인간의 짧은 생애가 이렇게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겠지만 너무나 불쌍하다. 그 생생하고 팔팔하게 뛰던 놈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줄이야 누가 예상했겠는가. (후략)

(3) 1966년 5월 29일 일요일: 비온 뒤에 개였다. 유격장에 온지도 벌써 한주일이 넘었고 주말 이라도 유격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중략) 유격대에 와서 우리의 생활은 무척 고되지만 정신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단조하다. 먹고 단련하고 쉬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그 외에 내게 가장 큰 이득은 자연과 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산꼭대기에서 미진에 쌓인 인간세계를 고고하게 굽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고, 바위틈을 흐르는 물소리에 내 마음의 율동을 실을 수 있고, 땅거미 진 풀위에 누어 귀뜨라미 소리를 듣고 지난시절을 상상해보는 여유를 가졌다. 잡다한 인간의 일들은 자연의 편에서 본다면, 미진이요 잔해에 불과하다.

(4) 1966년 7월 30일 토요일: 날씨는 맑았다. 오늘은 초등군사반을 수료하는 날이다. 나의 OBC 성적이 학급평균 이하의 C 학점(79.8)을 받아서, 그 연유를 알아본 결과, 동생 사망시 결석으로 시험을 치루지 못하여 모두 영점으로 처리되어, 실습시험과 정기시험 합하여 총 평균 성적으로 10 점을 잃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불가피한 일이었다.

소대장 및 대대 참모 (1966-1968)

나는 1966년 8월 12일 군의 인사명령으로 보병제 26사단에 배치를 받아 동기생 10명과 함께 사단 인사처에 등록을 하였고, 보병제 75연대 1대대 제 1중대에 보직되어, 연대

인사주임이 Jeep 차로 대대까지 안내해 주었다. 나는 제 1 중대 소대장으로 육사와 OBC 에서 배운 역량을 활용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1) 1966년 9월 11일 일요일: 비가 왔다. 현재 대대에 백미가 20 가마 부족하고, 장교식당이 근 2만원 적자라고 하는데, 그 원인-책임한계-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물론 대대장과 본부중대장에게 책임이 있다. 월 평균 전 대대원에게 정량을 먹이고도 백미가 10 가마쯤 남는다고 하던데, 지난 3개월 동안 본부중대장이 50 가마쯤 잃어버렸고, 장교식당도 잘못 운영하여 현금이 유출되었을 것이다. 무관심 해 지려고해도 정보가 들어와 곤혹스럽다. 내 직분의 한계를 넘어 조사관이나 검열관의 역할을 하고싶지는 않다. 대대와 중대를 살리는 길은 소대장 직책에 성실하면서 우리 중대에 정량을 타 먹이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부정이 지속된다면, 누군가가 과감하게 파헤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 1966년 10월 25일 화요일: 비가 왔다. 오늘은 분대전투대형, 화기 분해결합, 화생방교육, 그리고 자동소총 연구 및 교안을 작성 하였다. 나는 지금 소대장이다. 소대만 잘하면 된다. 그 이상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 소대장 이상을 하려고하면 기본 임무에 불충실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미화 작업하는 군대에 염증이 난다. 미지근한 일상에서 탈피하여,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나의 능력과 인간성을 시험하고 싶다. 공부하고 운동하는 것이 내게 시급하다. 부하를 아낀다는 것이 이들에게 안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잘 재워서 고되게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자. 육사의 명예를 잃지말고 육군이 내 어깨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가슴에 안고 다니자.

(3) 1967년 1월부터 대대 정보장교로 보직이 변경되어 참모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대대장을 수행하여 부대와 멀리 떨어진 캠프 소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참모는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나는 태권도교관으로 월남전에 갈 것을 다짐하고, 2월에 있을 육본 선발시험에 응시하기로 작정하였다.

주월 한국군사령부 태권도 교관단 교관(1968-1969)

나는 생도시절에 태권도 유단자가 되었고, 우리 사단이 태권도 사단으로 예하 4개 부대가 경쟁하였다. 나는 태권도 지도장교로 대대의 태권도 수련을 지도하면서 사단의 시합을

준비하였고, 자신도 꾸준히 수련하였다. 육군 본부에서 태권도 유단자를 약 60 명 선발하고, 1967 년 7 월부터 6 개월간 집단수련을 시작하여, 태권도 교관단을 월남에 파견하게 되었다. 나는 제 1 차 파견 교관으로 부산에서 미 수송선을 타고 동년 12 월 12 일 월남 나트랑에 도착하여, 비행기로 사이공에 있는 주월사 태권단에 신고하였고, 월남군 1 군단 사령부에 배치를 받아 다낭에 도착하여 미군 군사고문단의 지원하에 월남군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월남군 1 군단 사령부는 예하 전투사단 하사관의 적정 인원을 차출하여 학급을 구성하고, 매일 오전 오후로 수련하며, 주기적으로 수련생을 교대하였다. 나는 미군 고문단이 머무는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 받았으며, 월남군이 Jeep 차를 내게 지원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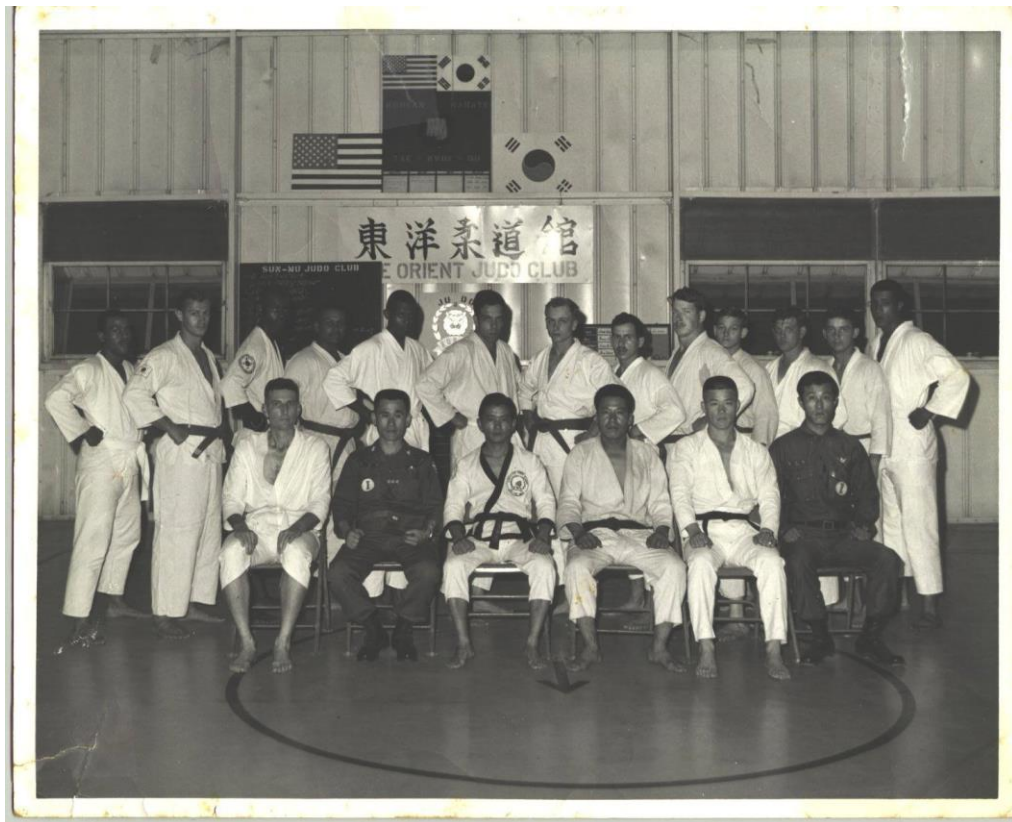


사진: 태권도 사설 학급 (월남 다낭 1968, 저자는 앞줄 우측에서 2 번째)

다낭에 미해병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태권도 수련을 원하는 미군들에게 야간에 태권도를 개인적으로 지도하게 되었다. 어느날 저녁에 미 해병 권투선수가 체육관에 와서, 빠른 주먹을 휘두르며 사범인 나에게 도전을 해 왔다. 나는 그에게 종지와 펜을 가져다 주면서, 자신이 결투에서 죽어도 이는 전적으로 도전해온 사람의 책임이며 사범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쓰고 서명한 후에 증인까지 세우게 하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도장 밖으로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 당시 내가 몇해 동안 꾸준히 단련을 해와서, 그가 계속 도전을 했었다면 아마도 치열한 결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후 나는 나트랑 월남군 하사관학교로 전속되어 반년 정도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1969년 6월에 귀국하였다. 그 때 내게 배우던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가끔 궁금할 때가 있었다.



사진: 육군소위 김휘국, 주월사 태권도교관단 교관 (1967-1969)

소위-중위 시절의 여타 회상

젊은 나에게도 어떤 인연으로 이성을 만나 교제하는 기회가 있었으나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녀가 친구와 함께 전방에 면회를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낸적도 있고 외출을 나가 만나기도 하였으나, 내가 가야할 험한 여정이 남아 있어, 아무 것도 기약할 수 없었다.

주월사령부 태권도 교관단 요원들이 1967년 6월부터 육본 본사에 집결하여 합숙 훈련을 시작하였고, 12월이면 월남으로 출국하여 언제 귀국할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월남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에게 어느 여성의 부모가 교제를 계속하도록 방치하겠는가? 냉정히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는 당시 배우자를 선택할 입장에 있지 않았다. 앞으로 3-4년 자유롭게 지내다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야 할 운명이라면 그 때 다시 시작해도 될 것이다. 오늘 나는 과감히 결심을 하고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서로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서신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좋아했었지만, 이제는 유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967년 12월 8일 금요일: 흐린 날씨. (전략) 오늘은 월남으로 향하는 항해 2일차로 동지나해를 지나고 있다. 항해를 즐기기도 보다는 롤링때문에 메스꺼워 속을 가누기에 정신이 없다. 선원들과도 대화를 해서 친분을 쌓았다. (중략) 출국 전까지 잠잠하던 내 마음이 끝없는 무변대해의 검푸른 수면 위에 거대한 함선이 파도를 이겨내고 달리는 기분에 함입되어 들뜬 마음을 가눌 수 없다. 그저 방임하고 싶을 뿐이다. 내 좁은 가슴을 마음껏 개방해서 대자연의 파도에 친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조그마한 선상의 직책에도 일거리가 많다. (후략)

3. 육군 대위 시절 (1969-1974)

서울대학교 ROTC 교관단 교관 (1969-1970)

월남에서 귀국하여 나는 서울대학교 학도군사훈련단 교관으로 보직을 받았다. 당시 서울대 ROTC 교관단 본부는 문리과 대학에 있었고, 나는 종암동의 상과대학에서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당시 상과 대학은 입시경쟁이 치열하여 학생들이 우수하였고 자존심이 강하였다. 장교후보생들에게 군사교육을 하는 것은 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관리학” 과목을 가르치면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흡족 할만한 강의를 하기 위하여, 나는 그들이 배우는 수준 이상의 공부를 하였다. 그들은 역시 우수하였고, 임관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리라고 믿고 기대하였다.

지금 한가지 추억으로 남는 것은, 내가 평소에 도수체조를 계속하여 동작이 민첩하고 힘이 있어, ROTC 후보생들에게 새로운 도수체조를 집단적으로 가르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리하여, 1,000여명이 넘는 ROTC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여 간격을 맞추어

체조대형을 취하게하고, 내가 앞의 연단에 서서 전학생에게 도수체조를 매스게임으로 지도하였다. 그 움직임이 일사불란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도수체로를 보급하는 운동처럼 느껴졌다. 당시 선배나 동료교관들로부터 나의 수고에 대해 많은 격려를 받았다.

보병연대 소총중대장 (1970-1972)

나는 1970년 1월에 결혼을 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보병 26사단으로 전속이되어 76연대 제2중대장으로 보직을 받아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사단장은 유학성 소장이었고, 연대장은 김복동 대령으로 모두가 군에서 덕망이 있다고 알려진 분들 이었다. 사단은 각 연대의 주둔지와 책임지역을 매년 순환 배치하였으며, 한 때 우리 연대는 한강 하류에 배치되어 적의 해상침투를 봉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병사들이 매일 지뢰를 설치하고 실탄을 장진하여 야간경계 임무를 수행하였다. 사단에서는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중대에서 병사들에게 주고 받는 실탄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지시를 해 왔다. 그러나 탄약고에서 실탄을 가져와서 개인에게 분배할 때, 매일 짧은 시간에 실탄의 날개를 헤아려 주고 받을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전투행위는 생사를 가름하는 전장에서는 전우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 현실적 평시의 안전관리는 불필요한 간섭으로 중대 간부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 중대가 도봉산 시설 경계를 위하여 소대를 배치한 적이 있었는데, 민간 재정지원으로 (비공식적으로) 그곳에 소대 막사를 짓게되었다. 이를 위하여 당시 중대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부족한 자재를 동원하고 건축 기술을 적용하여 그 막사를 잘 지었다. 중대장이 사심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부대를 지휘하면, 병사들은 힘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이 때에 더욱 실감하였다. 그 시절의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따듯해진다.

어느날 서울에 있는 아내가 첫째를 출산하고 갑자기 전방에 면회를 와서 물었더니, 왜 봉급을 보내주지 않느냐고 하였다. 당시 내가 수령하던 대위 봉급이 2만원이 못되었는데, 매달 10일에 봉급을 받으면 4가족이 월말까지 간신히 지탱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월말에 부식비가 500원 정도 나오면 그것으로 다음 봉급까지 간신히 메꾸어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달에는 중대훈련을 위해 위장망을 구입하였고, 중대 회식한다고 돈을 써서, 집에 보내줄

돈이 없었다. 어떻게든 아내가 메꾸어 나가려니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였고, 당시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아내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 이었다.

당시 군인가족의 생활은 너무나 고달팠다. 군인의 보직 특성상 거의 매년 전속을 하거나, 같은 부대에서 보직이 바뀌어도, 가족은 이삿짐을 싸기에 바빴다. 당시에는 군 부대에서 숙소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자의 경험으로 말하면, 전방부대 가까이 있는 마을에 방을 얻어 이사를 하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화장실 옆에 붙은 방 한칸을 빌리면, 문 밖에는 파리가 득실거리고 퀘퀘한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육군 보병학교 특보반 (1972)

보병연대 중대장 직을 2년 2개월 수행하고, 당시 광주에 있었던 육군보병학교 특보반에 입교하여 3개월 간의 보수교육을 받았다. 특보반은 군의 사정상, 고등군사반의 교육기간을 1개월 단축한 것이었다. 내가 초등군사반을 마치고 약 6년간의 부대근무를 하였으니, 이제 보수교육을 통하여 녹슬은 머리를 청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보병사단 작전처 작전장교 (1972-1973)

육군 보병학교 특보반 교육을 마치고 참신한 머리로 보병제 6사단으로 전속되어 사단 작전장교에 보직되었다. 사단 작전참모는 김병엽 중령으로 육사 13기 졸업생 가운데 군사학의 식견이 탁월해서 전성각 사단장이 발탁한 분으로 신망이 높았다. 그분 아래에서 근무하면서 사단의 작전계획을 자세히 검토하고 숙지하였고, 미군의 전술교리를 공부하여 군사적 안목을 넓혔다. 그분은 매우 자상하여 참모 장교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주셨다.

육군 제 3군 하사관학교 중대장 (1973-1974)

사단 작전장교를 1년 복무한 후, 새로 창설된 육군제 3군 하사관학교로 전속되어 중대장에 보직되었다. 우수한 하사관을 양성하여 전투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야전군에서 새로 창설한 학교로, 기강을 세우고 교육 훈련의 새로운 틀을 잡는 노력이 많이 요구되었다.

4. 육군 소령 시절 (1974-1979)

육군 제 25 사단 70 연대 작전주임 (1974-1975)

보병연대 전투단은 야전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단위 부대로서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령이 휘하에 중령이 지휘하는 3 개 보병대대가 있고, 전시에는 사단 105 미리 곡사포 대대가 배속되어 직접지원 하였다. 보병장교로서 연대작전주임의 경력은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 보병장교들은 이 자리를 원했다. 이 직책은 통상 육군대학 졸업자로 보직 하였으나, 군 인력 운영상 나는 육대 입교 전인 1974 년 7 월에 보병제 25 사단 70 연대의 작전주임으로 보직을 받았다. 당시 사단의 타 연대 작전주임은 모두 육군대학을 졸업하여 보직된 사람들로, 나의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연대장은 처음에 조금 불안하게 대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연대전투단 훈련은 사단 작전계획에 따라 상황을 전개하여 부대를 운용함에 있어, 정보주임의 정보판단에 기초하여 작전주임이 작전판단을 하고, 인사 군수판단이 후속하였다. 나는 준비기간에 열심히 연습하여 훈련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대장은 점차 나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다. 재직 기간 중에 연대 참모간의 협조가 중요 하였다. 당시 참모의 구성은 모두 나보다 선임인 일반장교로 육사출신에 대해 비 친화적 이었다. 이를테면, 작전주임이 교육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해 예하 대대를 방문하는데, 군수주임이 내 Jeep 차의 연료 배당을 줄여서 불편을 느낄 때가 많았다.

육군 3 사관학교 생도대 훈육관 (1975-1977)

연대작전주임 보직을 1 년 마치고, 나는 1974 년 8 월 육군 3 사관학교로 전속되어 생도대 훈육관으로 보직되었다. 육군 3 사관학교는 장기복무 장교를 양성하는 2 년제 교육기관 으로 육군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황영시 장군을 교장으로 임명하여 생도대의 훈육관에 육사출신 장교를 다수 보직하였다. 나는 훈육관에 부임하면서, 이들에게 정규 육사 수준의 훈육으로 군인정신이 투철한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나의 모든 가용시간을 생도들과 함께하였다. 임관 후 그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 후 2002 년 제자들이 지휘하는 연대를 기쁘게 방문하였다.

육군 3 사관학교 13 기 졸업생 지도부가 수년 전에 임관 40 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에서 축하 연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에서 갈 수가 없어서,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냈다. 나의 메시지가 집회의 마지막에 전 참석자들에게 영상으로 방영되어 모두가 생도시절을 회상하면서 감격스러웠다는 메시지들을 받았다. 그 후 이를 추억하려고 나는 이 영상을 다음과 같이 유튜브에 올렸다. [제 3 사관학교 13 기 임관 40 주년 축하 메시지 \(youtube.com\)](#) 또한 13 기 졸업생 19 훈육대에서 칠순잔치에 축하인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 영상을 보냈다. [육군 3 사관학교 13 기 졸업생 19 훈육대 칠순잔치 \(youtube.com\)](#)



사진: 육군소령 김휘국, 육군 3 사관학교 훈육관 (1975-1977)

육군대학 학생 정규 22 기 (1977-1978)

훈육관을 마감하고 1977 년 3 월에 육군대학에 입교하였다. 육군대학은 소령 이상의 장교들에게 지휘관 및 참모의 자질을 함양한다. 육대 정규과정은 1 년으로, 군사전문가 육성을 위해 군단급 이상 제대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군사전략, 야전군작전, 전술학, 참모학, 전쟁사 위주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이 기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육대 교육 기간 중 일부 장교들이 정치적 성향으로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장교제도과 인사관리장교 (1978-1979)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로 전속되어 인사처 제도과의 인사관리 장교에 보직되었다. 주로 장교들의 교육-보직-진급에 관한 인사제도를 연구분석하여 인사정책을 건의 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참모연구를 통해 문제를 규명하고 최선의 방책을 건의하여 참모총장의 결재가 나면, 인사운영감실에서 이를 집행했다.

처음에 나는 제도과 담당관들이 인사관리에 관한 지식이 미흡하여 장교, 하사관, 군무원 등의 당면한 인사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을 발전시킬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또한 대령 진급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특정지역 출신 진급해당자의 일부 중령들이 인사관리처를 방문하여 진급에 대해 불평을 종종 말하였다. 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는 계급별 출신지역별 통계를 (비공식으로) 집계하였으며, 상위계급 다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부터 정부 고위직 인사가 정치권력과 연계되어 왔었지만, 총체적 국민의 단합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정부 인사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5. 육군 중령 시절 (1979-1987)

나는 1979년 4월 중령으로 진급하여 9월에 군 유학생으로 미국 민간대학에 석사학위 과정 위탁교육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 워싱턴 DC의 Southeastern University에 입학하여 경영행정학(MBPA) 석사학위를 1년만에 취득하고, 같은 DC에 소재한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로 전학하여, 문리과대학 경제학과 대학원에 등록하고 2년간 수학하여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2년 6월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육본 인사참모부 교육과에 보직을 받아 근무하면서 국방대학원에서 인사관리 과목을 강의하였다. 다음해 국방대학원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어 1983년 9월 워싱턴 DC의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경제학 박사과정에 등록하여 3년간 수학하였다. 박사 자격시험과 종합시험을 합격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도중에 유학기간이 만료되어 1986년 6월에 귀국하여 국방대학원 교수로 보직을 받아 대령 진급 심사에 임하게 되었다.

나는 중령 계급 정년 8 년에서 6 년을 미국에 유학하였으나, 군의 인사원칙에 따라 대령으로 진급시켜 전문인력으로 장기 활용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XX 작전에 참가한 충성파 장교들을 대령으로 진급시키면서, 박사과정으로 미국에 유학했던 우리 동기생 4 명을 모두 진급에서 탈락시켜, 인사관리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양성한 전문인력을 중령 계급정년으로 모두 전역시킨 것이다.

내가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할 때는 직업군인으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육군본부에 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느껴서, 유학으로 식견을 넓혀 능력 있는 군인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니 동기생들은 대대장을 마치고 요직에 와서 진급을 바라보고 있어 이들과 야전군으로 경쟁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내 자신이 무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업에 정진하다 보니, 점차 학문의 세계로 빠지게 되어 야전군을 지휘하는 직업군인의 길을 이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87 년 4 월 30 일 육군중령 계급정년으로 전역을 하게되었다.

나는 군에 오래 남아서 대령 계급에 만족하며 교수 생활을 하려고 생각했었다. 전역 당시 국방대학원에서 민간인 교수로 남아달라는 비공식 요청도 있었으나, 바로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당시 학위를 마치려면 아직 2~3 년은 더 필요하였고, 정치권과 연계된 중령들을 진급시키려고 유학으로 양성한 전문인력을 퇴출시켰다는 군에 대한 배신감이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군에서 가졌던 정서상, 경쟁에 실패한 전역한 군인이 되어, 동기나 선후배들과 어울리고 교류하며 인간관계를 지탱할 자신이 없었다.

우선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기 위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미국 워싱턴 DC 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다행히 이 때 가족들이 아직 미국에 체재하고 있어서, 내가 출국하는데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전역은 아쉬웠지만, 이 것이 나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도약의 모멘텀이 되어, 내가 새로운 방향에서 제 2 의 도전을 시작하여 연구하고 가르치며 저술하는 학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하였지만, 방황하는 순간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다.

<http://hugokim.icks.org>